

유럽연합의 접경지역 개발 전략

-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의 P. E. D.¹⁾를 사례로 -

문 남 철*

The Transfrontier Development Strategies in European Union

- A Case Study of the Transfrontier among France-Belgium-Luxemburg -

Nam-Cheol Moon*

요약 : 유럽연합의 형성으로 회원국가간에 존재하였던 기존의 국경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됨에 따라 유럽연합은 낙후된 접경지역을 개발하고, 접경지역간의 상호활동을 증대시켜 통합된 공동체의 내부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1990년부터 접경지역개발계획(INTERREG)을 수립하여 접경지역 개발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과거 유럽 제철산업의 중심지였던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의 접경지역은 지역경제와 사회집체를 억제하고 안정된 지역경제의 재 구조화를 이루기 위해 유럽연합의 INTERREG 계획과 유사한 지역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접경지역의 공동개발인 P.E.D. 개발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경제의 재구조화뿐만 아니라 도시계획·행정·사회적 통합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공동개발계획을 시도하고 있다.

주요어 : 유럽연합, 접경지역,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 접경지역, INTERREG, P.E.D.

Abstract : With the formation of European Union, the frontier function which was existed among the member nations was vanished. The European Union, each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or regional self-government search actively for the transfrontier development strategies in order to make the underdeveloped transfrontiers an united internal region of European Union with an augmentation of mutual activities inter-transfrontier and a cooperative development of transfrontier.

On the transfrontier among France-Belgium-Luxemburg which was the iron industry center of Europe, the cooperative development strategies(P.E.D.) of the inter-government and inter-local are executing for the restructuring of the stable regional economic on the basis of the INTERREG program of the European Union. In recent years, the locals self-governments transfrontier are executing not only restructuring of regional economic but formation of urban community with the unification of the urban and regional planning, administration, and society.

Key Words : European Union, transfrontier, transfrontier among France-Belgium-Luxemburg, INTERREG, P.E.D.

1. 서론

유럽연합(EU)은 1990년대 이후 실질적인 통합을 지향하기 위해 단일시장 출범(93, 1),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93, 11), 유럽연합 회원국 확대(15개

국, 95, 1), 유럽단일통화(Euro) 창출(99, 1)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²⁾. 이러한 노력의 결과 회원국 국민들에게 국경통제가 철폐되고 자유로운 인적·물적·자본이동이 실현되어 실질적으로 유럽연합 내에서 국경은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국경은 양국간 인간의 자유로운 출입과 물자의

*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지리교육) 시간강사(Part-time Lecturer, Geography Major in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Seowon University)

자유로운 거래 등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장애기능(barrier function) 또는 분리기능(seperating function)과 접촉기능(contacting function)을 지니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자의 기능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유럽연방을 지향하는 유럽연합 회원국간에는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상호의존적인 관계 때문에 국경의 분리기능은 매우 미약하다.

유럽연합의 접경지역 성격은 국가적 관점과 공동체 관점에서 비교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경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 구조로 인해 한 국가의 주변부로 고려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인접국가와의 상이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법률적 체계 때문에 인접지역간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행정적 연계가 제한되게 된다. 아울러 국가간의 경계는 하천, 산맥 등과 같은 지리적 장애물인 자연 지형이 이용되기 때문에 접경지역간의 상호협력과 상호활동의 제한요소가 된다. 유럽단일시장의 내부 접경지역과 외부 접경지역도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비록 접경지역이 경제적·정치적 결정의 국가적 중심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존재하지만, 이들 지역 중 일부지역은 유럽연합의 출범과 더불어 유럽단일시장의 차원에서 지리적 중심위치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주변부 지역에 상반되는 이러한 지리적 중심부 지역들은 유럽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가에게 접근성의 측면에서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국경 없는 유럽을 만들기 위해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좁히고 균형회복을 목표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경을 접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적 특성을 보이게 마련이다. 낙후된 국경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접경 양 지역간의 상호활동을 증대시켜 통합된 단일지역환경을 위한 전략들이 유럽연합, 관련정부, 관련지역과 지방 단체차원에서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최근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적 집단화에 의해 국경의 성격과 접경지역 위치(situation)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각 관련

집단들은 어떤 개발전략을 보였는지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우선 유럽연합의 형성에 따른 접경지역의 성격변화와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접경지역 개발전략을 분석한다. 그리고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접경지역의 개발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의 P.E.D.를 대상으로 이 지역의 개발전략을 분석한다. 이 지역은 3개 국가의 국경이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유럽연합의 지리적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단일시장의 접경지역 중 지역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분석방법은 수집된 통계 및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주로 지도화 및 도표화하여 설명하는 서술적인 방법(descriptive method)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주요자료는 유럽연합의 접경지역 특성과 개발정책에 관해서는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발행한 자료들을 이용하였고, 3개국 접경지역(P.E.D.) 개발전략에 대해서는 각국의 접경지역개발 위원회(프랑스 Mission interministrielle, 벨기에 IDELUX, 룩셈부르크 Direction Technique du PED)와 접경지역 협회(Association Transfrontalière)에 자료를 요청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밖에 논문이나 신문에 게재된 자료를 보충 이용하였다.

2. 유럽연합의 접경지역 개발정책

1) 유럽연합 접경지역³⁾의 경제지리

유럽연합 12개 국가의 육지 접경지역의 길이는 약 1만km에 달한다. 이 중 약 절반은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내부경계이고, 나머지 절반은 비 회원국가와의 외부경계이다. 이들 접경지역에는 NUTS 3 기준으로 유럽연합 총 인구의 16.3%가 거주하고 유럽연합 전 면적의 22.4%를 차지한다. 그리고 NUTS 3 수준⁴⁾에서 184개의 접경지역이 존재하며 이들 지역 중 122개 지역은 유럽연합 회원국가간의 접경지역이고, 나머지 58개 지역은 동부유럽과 중부유럽의 인접국가와의 접경지역이다.

유럽연합의 접경지역은 지역에 따라 매우 상이한 언어적·경제적·문화적·물리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아일랜드의 접경지역과 공동체의 남부

표 1. 유럽연합의 육지 접경지역에 관한 지표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전 접경 지역	EU12 지역	내부 접경 지역	외부 접경 지역
육지 접경 지역	내부(%)	0	10	1	13	12	3	17	4	4	4	11	20	-	100	-	-
	외부(%)	21	0	0	42	0	0	1	0	0	25	0	11	-	100	-	-
	내부+외부(%)	7	6	0	23	8	2	12	3	3	12	7	17	-	100	-	-
접경지역의 수(NUTS 3)		14	14	1	68	24	1	12	3	1	14	10	22	-	184	-	-
면적	국가 면적 중 비중(%)	28.4	35.1	9.1	22.7	62.3	100.0	26.2	17.6	5.8	15.9	54.7	21.2	-	-	-	-
	전 접경지역 중 비중(%)	7.1	2.7	0.7	15.3	3.6	0.5	24.9	2.3	2.7	9.0	9.5	21.8	100.0	-	74.8	25.2
	EU 12 중 비중(%)	1.6	0.6	0.2	3.4	0.8	0.1	5.6	0.5	0.6	2.0	2.1	4.9	22.4	100.0	16.8	5.7
인구	국가 면적 중 비중(%)	23.1	34.4	4.9	16.3	50.5	100.0	14.7	11.6	2.8	12.8	21.0	22.3	-	-	-	-
	전 접경지역 중 비중(%)	4.2	9.2	0.4	23.1	9.0	0.7	10.3	0.7	2.8	13.2	3.7	22.6	100.0	-	74.5	25.5
	EU 12 중 비중(%)	0.7	1.5	0.1	3.7	1.5	0.1	1.7	0.1	0.5	2.1	0.6	3.7	16.3	100.0	12.1	4.1
인구 밀도(인/km ²)		63	356	64	159	265	147	43	33	113	154	41	109	105	153	105	107
인당 국민 총생산 (EU 12=100)		47	97	100	-	110	132	74	-	78	137	52	106	99.8	100	99.9	99.7
실업률(%)		-	7.2	8.4	-	7.5	1.6	16.8	17.4	16.3	6.4	3.4	8.9	8.1	9.4	8.9	4.5
구조기금의 혜택을 받는 접경지역의 인구 비중(%)		100	43	23	40	41	43	90	100	100	43	100	53	58	-	-	-

자료: Commission européenne, 1998.

에 위치한 접경지역들(프랑스와 스페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와 이탈리아,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그리스와 이웃국가)은 광범위한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적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지역들은 인구밀도에 있어 다른 회원국들의 접경지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들 지역의 인구밀도는 유럽연합의 평균 인구밀도 153인/km²에 비해 매우 낮은 약 30~60 인/km²을 나타낸다. 또한 이들 지역은 유럽연합의 접경지역 총 면적의 47%를 차지하는 반면에 접경지역 총 인구의 단지 20%만을 차지한다. 반대로 공동체의 북부에 위치한 접경지역들(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와 벨기에, 프랑스와 네덜란드·벨기에)의 국경은 물리적 장애물보다는 역사적 사건들에 의해 분리되었다. 이들 접경지역은 높은 경제적 수준을 보이고 인구밀도도 매우 높은 240~430인

/km²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유럽연합의 주변부 국가의 접경지역은 낮은 인구분포를 보이는 반면에 중심부 국가의 접경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분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과 동부유럽의 비 회원국간에 위치한 접경지역(독일과 폴란드·체코)은 대체로 자연적 장애물보다는 정치적 이념의 차이에 의해 분리되었으며,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적 수준과 언어적·문화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국경을 정하는 지리적 특성들은 접경지역 경제력의 결정요소의 특징을 지닌다. 하천은 하안에 위치한 도시와 도시지역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면 반대로 산맥들은 국제적 교역과 협력을 어렵게 하고 접경에 위치한 지역들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국경들도 접경지역의 경제와 사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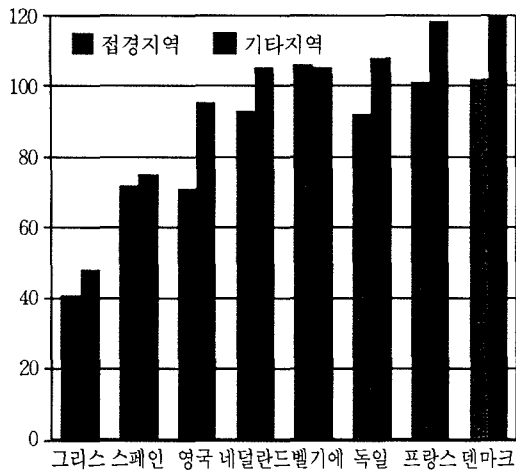


그림 1. 접경지역과 기타지역의 국민총생산 비교 (지수 EU12=100)

자료: Commission européenne, 1998.

발전을 저해하고 분리하는 인위적인 장애물이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유럽연합 접경지역의 평균 1인당 국민 총생산은 같은 국가의 다른 지역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접경 양 지역간 1인당 국민총생산과 사회·경제적 요소의 차이는 관련된 접경지역 개발 잠재력의 차이성과 어려움을 반영한다. 접경 양 지역이 서로 상이한 경제적·사회적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호보완적인 특성을 지닌 협력 활동을 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접경 양 지역이 농촌지역과 산업활동지역으로 구성된 경우, 농촌지역이 주말 여가활동을 위한 지역개발 추진하면 이것은 접경의 다른 지역에 위치한 산업활동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게 되고 이것은 다시 농촌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반대로 접경 양 지역이 유사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우에는 보통 지역간 공동협력을 통해 경제·사회·지역개발 등을 추구할 수 있다.

2) 유럽연합 형성과 접경지역

지금까지 한 국가의 주변부로 머물렀던 접경지역은 낮은 인구밀도에 따른 높은 시설투자비용 등으로 교통·통신망, 교육시설, 의료시설, 에너지, 용수 등 하부구조에 있어 매우 빈약하였다. 산업활동은 주로 석탄과 철광석 등과 같은 자연자원에 의

존한 산업 또는 섬유와 관광 등과 같은 낮은 기술 수준에 의존한 산업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화학공장, 원자력, 정화시설 등과 같은 오염배출·혐오산업을 입지하는 경향을 지녀왔다. 즉 허약한 인구구조와 빈약한 하부구조 그리고 불균형적인 산업발달은 접경지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왔다⁵⁾.

그러나 재화·용역·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단일시장의 출범으로 국가간에 존재하였던 기존 국경이 폐지됨으로서 접경지역은 인접국가로부터의 접근성이 증대되면서 지금까지 한 국가의 주변부로 머물렀던 몇몇 접경지역들은 유럽연합의 지리적 중심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 통합과 교역의 확대에 따라 주변부 지역에 상반되는 이러한 단일시장의 지리적 중심부 지역들은 기업가에게 접근성의 측면에서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간의 접경지역과, 프랑스와 스페인, 덴마크와 독일,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접경지역은 접근성의 향상과 더불어 주변지역의 특성이 감소되었다. 특히 유럽의 지리적 중심국가들은 접경지역의 잠재적 이점을 활용하여 동부국가와 서부국가와의 상업활동을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언어·문화·사회적 법률·세계 등의 차이성에 의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인접국가에서 일하기 위해 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실현되면 접경 양 지역간의 이동은 급격히 증가되고 접경지역에는 새로운 고용지역이 출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럽의회, 유럽 위원회 그리고 유럽 접경지역 협회 등은 접경지역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을 위해 관련 지방·지역·회원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접경지역간의 경험과 정보 및 인적교류를 지원·촉진하고,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원국간의 양자 혹은 다자간의 모임을 조직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들은 크게 3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다. 우선 접경 지역 또는 지방 자치단체 대표들이 공동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회의를 갖는 형태로 이러한 방식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아일랜드와 북 아일랜드, 프랑스와 이탈리아간의 접경지역 협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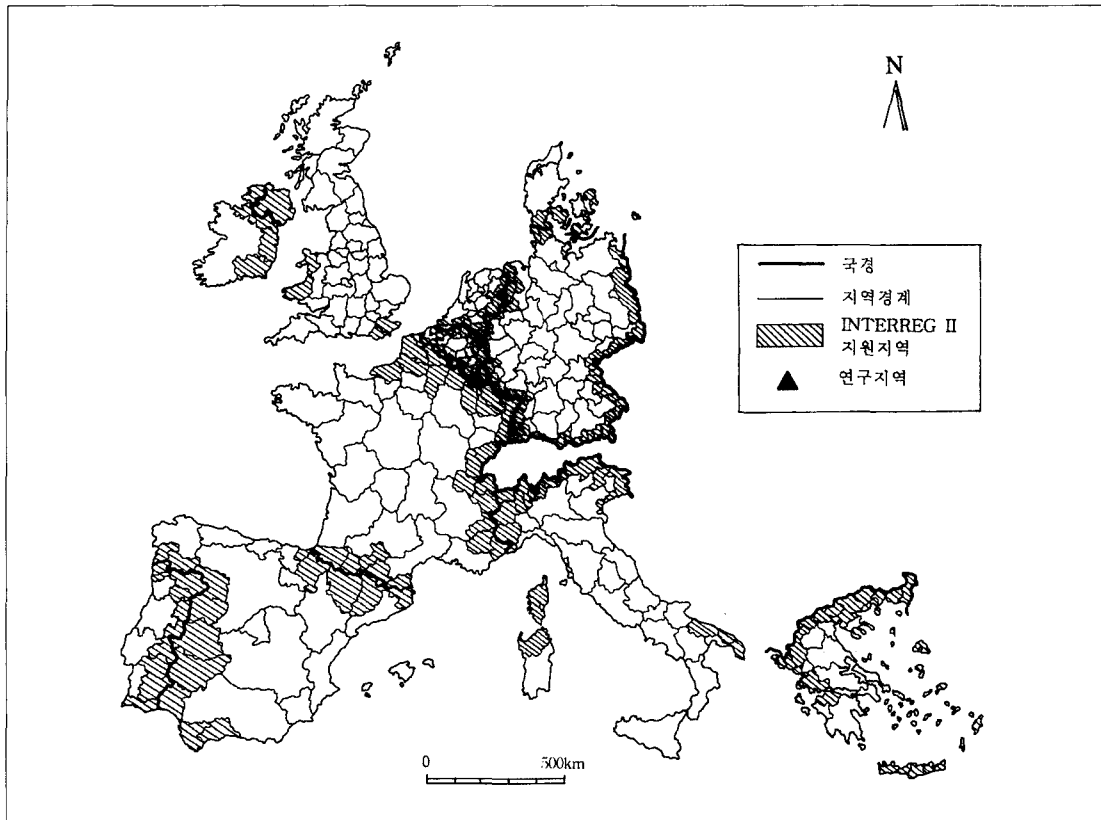


그림 2. 유럽연합의 접경지역과 INTERREG II 지원지역

방식은 국가간의 협정에 의해 지역 또는 지방 차이에 상설 회의를 갖는 방식으로 프랑스와 인접 국가들간, 네덜란드와 독일간의 접경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마지막 접경지역의 활동계획을 개발하고 지역별, 분야별 계획을 조정하기 위해 국가간 공식적인 협정에 의해 설립된 지역 계획 위원회에서 협력을 이루는 방식으로 프랑스와 독일, 프랑스와 스페인간의 접경지역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의 협력의 기초가 되는 법률적·행정적 개선의 실행은 아직까지 지역간 협력활동보다는 국가간 협력활동처럼 간주되고 있다.

3) 유럽연합 구조기금과 접경지역

유럽연합은 낙후된 접경지역을 개발하여 통합된 공동체 내부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 INTERREG I 계획¹⁾을 수립하였고, 1994년 이 계획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INTERREG II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의 목적은 첫째, 유럽연합 또는 각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유럽연합의 내부 및 외부 접경지역개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며 둘째, 내부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인접 국가간·지역간 협력조직의 설립을 장려하고 셋째, 유럽연합 형성에 따른 외부 접경지역의 역할에 대한 적응을 촉진하며 넷째, 유럽연합의 외부 접경지역에서 비 회원국과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 추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개발을 위한 INTERREG II 프로그램에 의해 유럽연합 구조기금의 원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지역(NUTS 3)은 공동체의 내부 혹은 외부의 전체 육지 접경지역과 해안접경과 관련된 일부 지역들로 설정되어 있으며, 유럽연합은 접경지역 협력개발을 위해 총 개발비용의 20% 이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하고 있다.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유럽연합의 재정적 지원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합된 지리적 단위로서 접경지역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접경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접경지역의 관광 및 관광농업 개발, 접경지역의 용수·가스·전기와 통신 공급과 재생에너지 자원개발, 접경지역의 오염방지 및 폐기물 처리, 접경지역 농촌 개발, 농업생산성 개선 및 접경지역의 상업활동지원, 상업 기구·전문가 협회 혹은 접경지역 개발기구 설립 또는 개발, 접경지역의 교통·통신시설개선 및 교통·통신·에너지 망 개발, 접경지역 내 교육·문화분야 협력, 접경지역의 인력양성 및 고용지원, 의료분야협력, 접경국가간의 상이한 언어·행정·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접경지역 도시체계 개발과 지역개발계획, 외부국경으로의 밀수입 방지 등이다.

즉 유럽연합의 내부접경 양 지역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이 접경 양 지역의 개발 차원에서 예상효과를 지니면 그 계획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단일시장의 형성에 의해 심각한 고용손실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대체 고용창출을 이룰 경우 특별한 재정적 배려를 받게된다. 그리고 외부접경지역 개발방안이 유럽연합의 외부접경지역과 이웃 국가의 접경지역간에 협력을 증진시키고 이들 지역이 단일시장 출범으로 형성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도록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경우 지원을 받게된다.

INTERREG II 프로그램에 의한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회원국 국가들은 관련된 국가들에 의해 작성된 실행계획 제안서 혹은 기존 실행 중인 계획은 변경 계획서를 제출한다. 제출된 다양한 계획들에 대한 공동체의 지원은 관련된 접경지역의 인구, 개발수준, 그리고 제출된 계획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 금액은 구조기금 법률과 관련 국가, 지역단체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서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유럽연합회원국들에 의해 제안된 계획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 따라 위원회에서 평가된다. 첫째,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일관적이고, 구조적 수단인지, 그리고 인적자원과 관계된 전략인지 둘째, 내부접경에 대해서는 제안된 계획의 접경 양 지역개발에 대한 예상효과에 의해, 외부접경에 대해서는 제안된 계획의 접경지역 협력촉진의 정도에 의해 셋째, 제안된 계획에 대한 국가적·지

역적 출자와 공동체에 요구한 협조의 정도에 의해 마지막으로, 실행에 대한 법률적 유효성, 조사와 평가, 그리고 방안 실행에 있어 지역·지방 단체의 관련 정도를 평가기준으로 하고있다.

접경지역 개발에 대해 유럽연합 구조기금의 지원은 1994~1999년 기간에 NUTS 3의 수준에서 184건이 이루어졌으나, 접경지역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유럽연합 구조기금 혜택은 차이를 보였다. 40개 지역은 유럽기금 목적⁷⁾ 1인 낙후지역 개발과 관련된 기준에 의해, 27개 지역은 목적 2인 산업쇠퇴지역 개발과 관련된 기준에 따라, 60개 지역은 목적 5b의 기준인 농촌지역의 다변화 정책에 의해, 13개 지역은 목적 2와 목적 5b 혹은 목적 2와 목적 1의 기준에 의해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 반면에 45개 접경지역은 어떠한 원조도 받지 못하였다. 1989~1993년과 비교하여 구조기금의 혜택을 받은 지역은 109개 지역에서 140개 지역으로 늘어났으며, 이들 지역중 대부분은 농촌지역의 경제구조의 다변화를 위한 목적 5b와 관련되었다.

3.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의 접경지역 개발전략

1) 지역적 특성

프랑스의 Longwy-벨기에의 Athus-룩셈부르크의 Rodange가 접경을 이루는 이 지역은 철광석, 석탄, 수력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제철산업이 일찍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제철산업은 원료의 수출입에 불리한 지리적 여건과 노후화된 시설, 낙후된 기술, 산업 다변화의 부족 그리고 신흥제철산업국의 등장으로 1970년대 이후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제철산업 위기와 더불어 매우 심각한 지역적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이다. 실제적으로 이 지역은 1974년부터 1985년까지 약 10년 사이 제철산업분야 종사자의 60%(약 2만 6천명), 인구의 약 20%가 감소하였다.

지역 경제위기의 확대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침체를 억제하고 안정된 지역경제의 재 구조화를 이끌기 위한 방안들이 1980년대 들어와서 관련국가간에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⁸⁾. 접경지역에 대한 공동 개발계획 구상은 1984년 위기지역의 산업

표 2. 제철산업 종사자 변화(1975-1985년)

	제철산업 종사자(명)		고용 감소(명)
	1974	1985	1974-1985
Longwy	16,334	4,247	-12,094(-74%)
Athus	24,113	12,400	-11,713(-49%)
Rodange	2,350	0	-2,350(-100%)
합계	42,797	16,647	-26,150(-60%)

자료: IDELUX, 1997.

전환 문제에 관심을 갖은 프랑스 정부에 의해 이루어져 접경국가인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 제안되면서 구체화되었다.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접경지역 공동개발 계획은 1985년 7월 유럽공동체에서 받아들여져 총 비용의 50%에 달하는 재정적 원조를 보장받게 되었다. 유럽공동체가 제공한 재정적 수단과 접경지역간의 유사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으로 접경지역 공동개발은 1985년부터 실행되었다.

접경지역 공동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역은 유럽경제의 중심축을 이루는 블루벨트(Blue belt)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경제적 역동성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이 지역이 가진 이점으로는 첫째, 유럽 단일시장의 지리적 중심부에 위치하여 주요 대도시 소비시장과의 가까운 거리⁹⁾ 둘째, 과거 제철산업에서 축적된 풍부하고 숙련된 노동력의 공급 셋째, 유럽연합과 관련 정부차원에서 광범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993년 유럽 단일시장이 형성과 더불어 유럽연합의 지리적 중심지 위치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지역이다.

2) P.E.D.의 설치

유럽공동체의 재정적 지원 하에 지역경제의 재구조화를 위해 관련 3개국 정부는 1985년 3개국의 접경지역인 Longwy-Althus-Rodange에 공동으로 '유럽 개발 축(Pôle Européen de Développement, P.E.D.)'을 설치하였다. P.E.D.는 프랑스, 벨기에, 룩



그림 3. P.E.D.의 지역적 범위

셈부르크의 3개 국가의 국경이 접하는 3국간의 접경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약 20km의 지역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한계는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P.E.D.의 발전과의 관련여하에 따라서 달리 정해져 있어 반경 20km 이외의 지점도 재정적인 원조를 받는다. 그리고 3개국의 접경지역인 제철산업의 휴간지의 적극적인 개발을 위해 벨기에 Athus 150ha, 프랑스 Longwy 250ha, 룩셈부르크 Rodange 100ha 등 약 500ha 규모의 '국제 업무지구 (Parc International d'Activités, P.I.A.)'가 설치되었다.

P.E.D. 설치 목적은 제철산업의 위기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침체를 억제하고 안정된 지역 경제의 재 구조화를 위해 P.E.D. 지역에서 1995년까지 10년 동안 프랑스 5,500명, 벨기에 1,500명, 룩셈부르크 1,000명 등 총 8천명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방안들이 1985년의 공동지역개발 선언에 따라 마련되었다. 첫째, 벨기에 Athus, 룩셈부르크 Rodange, 프랑스 Mont-Saint-Martin, Longwy와 Longlaville의 버려진 제철산업용지에 500ha의 '국제 업무지구 (Parc International d'Activités, P.I.A.)'을 설립한다. 그리고 재정적 특혜와 직접투자 원조를 포함하는 P.I.A.에 대한 특별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둘째, P.E.D.의 관리, 실행, 향상을 위한 공동관리 기구를 설립한다. 셋째, P.I.A.의 재개발, 정비, 시설, 지역의 교통·통신망 확충, 환경 개선 등 필요한 공공 인프라 구축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행한다. 그리고 기업에 적합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즉 주요목적은 P.I.A.와 다수의 업무지역의 설치를 통해 룩셈부르크 Rodange와 프랑스 Longwy 사이의 Chiers 계곡 내 500ha의 버려진 산업용지의 재 활성화에 있다.

3) P.E.D. 개발의 주요 방안

(1) 국제 업무지구(P.I.A.)와 특별지원제도

지역산업의 위기와 더불어 침체된 3개국 접경지역은 공동개발을 위해 500ha에 달하는 '국제 업무지구(P.I.A.)'로 조성되었다. 이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제도와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교통·통신망 확대, 도시환경 개선, 산업분야 재정비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계획이 진행되었다. P.I.A.에 대한 특별지원제도에

따라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자금의 35%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기존의 투자보조금(벨기에와 룩셈부르크 15%, 프랑스 25%)에 비해 매우 확대된 것으로 유럽 연합에 의해 46%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접경지역 개발 기금(EUREFT)을 설립되어 기본적으로 접경지역개발계획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자본참여를 통해 기업의 창설과 확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즉 안정된 지역 경제의 재 구조화를 이끌기 위해 새로운 기업 입지 혹은 기존 시설의 확장에 대해 재정적 원조와 입지 기업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입지 환경의 개선 등의 간접적인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P.I.A. 지역의 재개발과 더불어 관련 3개국의 접경지점으로부터 반경 약 20km에 위치한 기존 도시들도 '일시 업무지역 (Zones d'activités Transitoires, Z.A.T.)'로 설정되어 P.I.A.와 동일한 특별지원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2) 공동관리 기구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상호협력 증진과 P.E.D. 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별기구가 설치되었다. 이 기구는 역할과 기능에 따라 3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3개국 정부의 책임 부처에 의해 구성된 '정책적 동반 위원회(Comité d'Accompagnement Politique C.A.P.)'는 P.E.D. 개발을 위해 관련 국가간에 체결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상설조정 위원회(C.P.C.)에서 작성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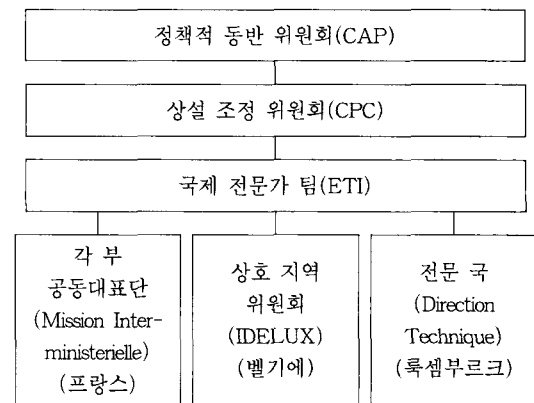


그림 4. P.E.D.의 행정조직

자료: P.E.D., 1995.

일년의 결산을 종합평가하고 새로운 계획을 결정하는 역할과 재정적 원조의 분배의 책임을 맡고있다.

둘째, 관련 3개국 정부에 의해 임명된 12명의 관리자와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조정 위원회 (Commission Permanente de Coordination C.P.C.)'는 정책적 동반 위원회(C.A.P.)에서 결정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개발계획과 실행의 우선권을 결정하고 진행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국제 전문가 팀 (E.T.I) 업무의 책임을 맡는다. 세 번째로 '국제 전문가 팀(Equipe Technique Internationale E.T.I)'은 국가의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P.E.D.의 실질적 집행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상설조정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실행을 맡고 있으며 지역 정비, 산업용지의 개발, 기업가 또는 개인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순조로운 진행 등을 담당한다. '국제 전문가 팀'은 국가별로 조직된 3가지 기구로 재편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각 부 공동 대표단', 벨기에의 '상호지역 위원회', 룩셈부르크의 '전문 국'이 각 국가의 P.E.D. 지역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조직들의 활동은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에 한정되고 있으며 P.E.D.의 개발, 특히 지역 개발은 내적으로 강한 경쟁을 보이는 접경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관련 국가의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3) 지역기반 조성

이 지역은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철강산업에 집중된 단일산업지역으로 지역경제의 다변화가 미흡하고, 침체된 철강산업에 의한 반 도시적 환경, 불충분한 도시기반 시설, 내륙에 위치하여 소비시장·원료와 에너지 공급지로부터의 먼 거리,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오랜 기간에 걸친 고립·단절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지리적 중심부에 위치한 이 지역은 유럽단일시장의 형성과 더불어 매우 유리한 입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P.E.D. 계획은 새로운 수단을 통해 이러한 불리한 점을 극복하고 유리한 점을 개발하여 이 지역의 미약한 흡인력을 보완하고 기업들의 입지를 유도하여 새로운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침체를 억제하고 안정된 지역경제의 재 구조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련 3개국 혹

은 지역단체들은 과거 국가 혹은 지역마다 분리되어 추진되어온 정책들을 관련 국가간, 지역간의 합의된 정책을 통해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 공동계획의 실행을 통해 불리한 조건들의 개선, 즉 도시환경의 쇄신, 하부구조개선, 기업에 적합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도시환경의 쇄신을 위해 주택공급, 다변화되고 현대화된 상업시설, 공공서비스의 개발 등을 통해 기업의 입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우선 접경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영속성을 회복하기 위해 휴간지가 된 산업용지의 많은 부분은 P.I.A. 지역으로 조성되었고, 사용되지 않는 산업시설은 해체되어 판매되었고, 그리고 재사용 가능한 건물들은 개조를 통해 행정용 혹은 산업용으로 전환되었다. 산업용지와 시설용지로 개발될 수 없는 토지는 초원·녹화사업에 의해 경관으로 조성되었다. 그 밖의 일부 주변 용지는 새로운 거주단지로 개발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P.E.D. 지역의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관련 3개국의 25개 지방(300km²와 약 11만 7천명의 주민)이 참여한 'P.E.D.의 접경지역권, (l'Agglomeration du P.E.D.)'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P.E.D. 개발지역은 지금까지 유럽연합의 경제 공간적 측면에서 주변지역으로 존재하였다. 이 지역의 교통망의 확대 방안은 지역간 또는 지방간 도로시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룩셈부르크 시 Luxembourg와 벨기에 브뤼셀 Brussel, 프랑스 낭시 Nancy와 메츠 Metz와의 교통망의 개선은 이 지역을 유럽의 경제 공간적인 면에서 그 가치를 향상시키게 하고 있다. 파리-스트라스부르를 연결하는 TGV 동부선(계획 중)과 파리-스트라스부르를 동서로 연결하는 A4 고속도로와 낭시-룩셈부르크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A31 고속도로, 룩셈부르크-브뤼셀을 연결하는 E411과 E9 고속도로는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도로교통망의 확충으로 메츠-낭시-로렌 공항까지는 약 15분, 룩셈부르크 국제공항까지는 약 40분이 소요되고 있다. 화물수송을 위한 철도교통의 하부구조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여행객을 위한 철도연계의 개선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P.E.D. 지역 내에는 공동의 교통체계(버스와 기차)로 지역간 이동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그밖에

현대화된 통신서비스시설 및 땅이 공동으로 혹은 각 국가에 의해 확충되었다.

P.E.D. 지역에 입지한 기업이 요구하는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 프랑스 Longwy에 관련 3개국 공동으로 '유럽 기술 학교(College Européenne de Technologie, C.E.T.)' 설립하였다. 이 학교는 Longwy, Luxembourg, Arlon 과 Virton 등에 위치한 40여 개의 대학 및 기술연구소와의 연계에 의해 P.E.D.에 입지한 기업에 적합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행정, 언어 분야에서의 교육과정과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 입지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 3개국이 공동으로 공동서비스센터를 설립하였다. 이 곳에는 행정정보실, 재정·관리·정보 등에 관한 상담소, 세관, 우체국, 금융기관, 자료실, 회의실, 호텔 등이 입주하여 입지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4) 유럽연합 구조기금의 P.E.D. 출자

P.E.D. 개발은 유럽연합의 재정적 원조와 관련 국가정부의 투자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1985년부터 1995년까지 P.E.D 개발에 4억 6천만 ECU의 공공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약 50%인 약 2억 6천만 ECU가 유럽연합 구조기금에서 지원되었다. 특히 쇠퇴산업지역의 경제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유럽기금의 투자 목적 2에 의해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이 지원되었고, 1991년 이후에는 접경지역의 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INTERREG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졌다. 유럽연합 구조기금에서 지원된 투자액 중 약 40%는 벨기에, 약 32%는 프랑스, 나머지 약 28%는 룩셈부르크 지역의 P.E.D. 개발에 투자되었다.

표 3. P.E.D. 개발을 위한 유럽기금의 국가별 투자 금액(1986-1995)

국 가	총액(백만 ECU)
프 랑 스	85
벨 기 에	107
룩셈부르크	72
합계 총액	264

자료: Commission européenne, 1998.

이러한 P.E.D. 개발에 대한 유럽연합의 재정적 지원은 수단의 실행에 있어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몇 가지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즉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의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원조에 대한 허가, E.R.D.F. 기금을 이용하는 기업의 하부구조와 환경 투자에 대한 지원, 특권을 부여하는 관세편익에 대한 허가, 유럽사회기금(ESF) 또는 기타 유럽연합의 재정적 프로그램에 의해 인력양성 계획과 기술개발 계획에 대한 지원 등에 있어 유럽연합차원에서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4. P.E.D. 개발성과와 입지기업 특성

1) 입지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1997년까지 P.E.D. 지역에 53개 산업시설이 입주해 있다. 이 중 32개는 P.E.D. 지역에 새로이 입지한 산업시설이고 나머지 21개는 기업확장 또는 현지에서의 이전된 산업시설이다. 국가별로는 프랑스 지역에 30개, 벨기에 지역에 8개, 룩셈부르크 지역에 15개 기업이 입지하고 있다. 프랑스에 입지한 30개 기업 중 17개 기업은 현지에서 이전된 산업시설이거나 기업확장을 한 기업들이고 13개 기업만이 이 지역에 새로이 입지한 기업들이다. 반면에

표 4. P.E.D. 입지기업의 특성 (단위: 기업 수)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합 계
새로운 입지	13	5	14	32
기업의 확장 또는 이전	17	3	1	21
합계	30	8	15	53

자료: Association Transfrontalière, 1999.

표 5. P.E.D.에서 창출된 고용자(1986-1997) (단위: 명)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합 계
P.I.A.	1,216	558	261	2,035
P.I.A. 이외	1,417	944	1,576	3,937
P.E.D. 전체	2,633	1,502	1,837	5,972
1995년 목표	5,500	1,500	1,000	8,000
달성률(%)	48%	100%	184%	75%

자료: Association Transfrontalière,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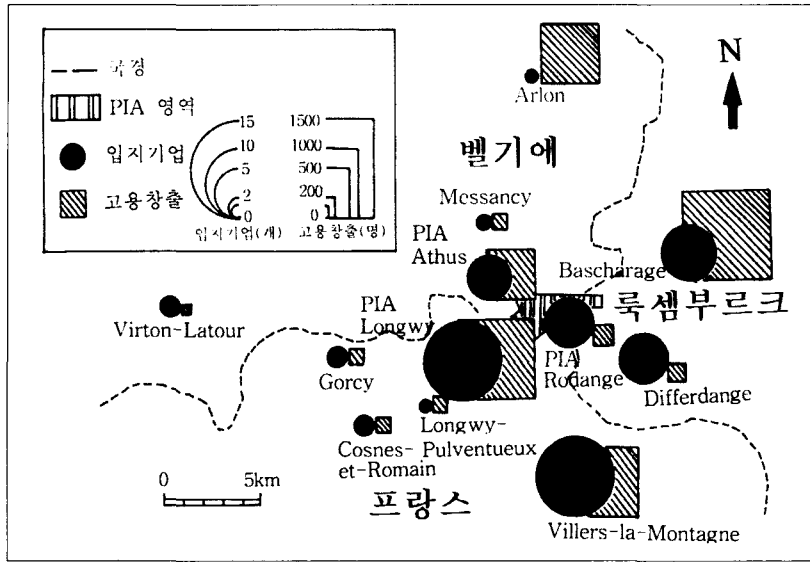


그림 5. P.E.D. 기업입지와 고용창출 분포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15개의 기업 중 14개의 기업이 새로이 입지한 기업이고 이 중 8개 기업은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의 원조를 받지 않은 기업이다. 즉 ER.D.F.의 원조를 받지 않는 8기업은 모두 그들의 입지지역으로 룩셈부르크 지역을 선택하였다. 이들 53개 산업시설에서 5,972명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어 목표치의 75%가 달성되었다. 국가별로는 목표치의 48%만이 달성한 프랑스의 경우를 제외하고 벨기에 100%, 룩셈부르크 184%로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또는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얻었다¹⁰⁾.

이러한 결과는 프랑스의 경우 입지한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이 현지에서 이전한 기업이거나 확장된 기업으로 기대 한 만큼의 고용창출을 하지 못한 반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경우는 새로운 기업의 입지에 따라 많은 새로운 고용창출효과를 보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룩셈부르크의 경우 새로운 기업의 입지선호로 기대 이상의 고용창출효과를 얻었다.

지역별로는 기존지역(Z.A.T., 프랑스 Villers-la-Montagne, Gorcy, Cosnes-et-Romain, Longwy-Pulventueux, 벨기에 Arlon, Messancy, Virton-Latour, 룩셈부르크 Differdange, Bascharage 등)의 입지기업 대한 재정적 원조와 이들 지역의 매력적인 자연환경에 의해 이들 지역은 P.E.D.에서 특별한 지원제도를 혜택을 받는 P.I.A.지역 대해 상당한

경쟁력을 지금까지 나타내고 있다.

즉 P.I.A.에서 창출된 고용인은 2,035명으로 P.E.D. 전체에서 창출된 고용의 겨우 1/3만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3고용 창출은 기존지역들에서 이루어졌다.

기업입지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지역은 룩셈부르크의 Bascharage로 4개 기업 입지에 1,342명, 프랑스의 Villers-la-Montagne는 12개 기업에서 1,076명의 새로운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다. 그밖에 프랑스 Csn-es-et-Romain, Longwy-Pulventueux, 벨기에 Arlon, Messancy, Virton-Latour, 룩셈부르크 Differdange에서도 소규모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제업무지구(P.I.A.) 중에서는 프랑스 Longwy P.I.A.는 13개 기업 입지에 1,216명으로 가장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벨기에 Athus P.I.A.는 4개 기업에서 558명, 룩셈부르크 Rodange P.I.A.는 5개 기업에서 261명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었다.

2) 입지기업의 국가별, 산업별 특성

P.E.D. 지역에 입지한 53개의 기업 중 29개의 기업은 관련 3개국의 기업이고 나머지 24개의 기업은 외국기업으로 이루어졌다. 29개의 관련국가기업 중 프랑스 기업이 23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5개 기업이 벨기에 기업이고 나머지 1개 기업만이 룩

표 6. P.E.D. 입지기업의 국가별·지역별 현황

(단위: 업체 수)

투자 국가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합계		
	PIA.	PIA. 이외	P.E.D. 전체	PIA.	PIA. 이외	P.E.D. 전체	PIA.	PIA. 이외	P.E.D. 전체	PIA.	PIA. 이외	P.E.D. 전체
프랑스	9	12	21	0	0	0	1	1	2	10	13	23
벨기에	0	0	0	3	0	3	2	0	2	5	0	5
룩셈부르크	0	0	0	0	0	0	0	1	1	0	1	1
일본	0	2	2	0	0	0	0	1	1	0	3	3
한국	1	1	2	0	0	0	0	0	0	1	1	2
미국	1	0	1	1	3	4	2	5	7	4	8	12
영국	0	1	1	0	0	0	0	1	1	0	2	2
이탈리아	1	1	2	0	1	1	0	0	0	1	2	3
독일	0	1	1	0	0	0	0	1	1	0	2	2
합계	12	18	30	4	4	8	5	10	15	21	32	53

자료: Association Transfrontalière, 1999.

셈부르크기업이다. 외국투자기업은 미국기업이 12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일본, 이탈리아기업이 각각 3개, 한국, 영국기업이 각각 2개, 독일기업이 1개가 입지하고 있다.

지역별 외국인 투자를 살펴보면 30개의 기업이 입지한 프랑스 P.E.D.에는 프랑스 기업이 21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이탈리아 기업이 각각 2개씩 입지하고 있다. 그밖에 미국, 영국, 독일 기업이 1개씩 위치하고 있다. 8개의 기업이 입지하고 있는 벨기에 지역에는 3개의 벨기에 기업과 4개의 미국기업 그리고 1개의 이탈리아 기업이 위치하고 있다. 15개의 입지하고 있는 벨기에 P.E.D.에는 미국기업이 가장 많은 7개 기업이 입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프랑스, 벨기에 기업이 각각 2개씩, 룩셈부르크, 일본, 영국기업이 각각 1개씩 위치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투자지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투자를 보인 미국기업의 경우 12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룩셈부르크지역을, 4개의 기업이 벨기에 지역을, 나머지 1개의 기업만이 프랑스 지역을 선택하였다. 일본기업의 경우 P.E.D. 지역에 투자한 3개의 기업 중 2개의 기업은 프랑스에 1개의 기업은 룩셈부르크에 입지하고 있다. 2개의 한국기업은 모두 프랑스지역을 선택하였다. 그밖에 이탈리아의 3개 기업 중 2개 기업은 프랑스에 1개 기업은 벨기에에 입지하고 있으며, 영국의 2개 기업 중 1개는 프

랑스에 1개는 룩셈부르크에 입지하였다. 즉 미국기업들은 투자지역으로 룩셈부르크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 한국기업은 프랑스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특별혜택을 받는 P.I.A.지역에 대한 투자 선호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전체 53개 입지기업 중 21개 기업이 P.I.A.지역을 나머지 32개 기업이 P.I.A. 이외의 지역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P.I.A. 이외의 기존지역에서도 투자에 대한 재정적 원조와 이들 지역이 지닌 매력적인 자연환경이 많은 기업들이 입지요인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의 원조를 받지 않는 8개의 기업은 일본기업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 기업은 P.I.A. 이외의 기존지역을 선택하였다.

P.E.D.에 입지한 산업분야는 전통적인 제철, 섬유산업에서 화학, 기계, 전자, 정보산업 등 매우 다양하다. 화학, 금속·제철, 기계, 전기·전자 산업분야에 각각 7~9개의 기업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의 음·식료, 섬유, 유리, 목재·인쇄, 정보기술, 완구 산업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도 각각 1~2개씩 입주하였다. 특히 전자산업분야는 9개의 기업이 입지하여 창출된 전체 고용자 수의 약 1/3인 2,087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 지역에 현대화되고 역동적인 전자, 정보산업의 입지는 과거 제철 단일산업의 지역 이미지의 개선과 지역경제의 재

표 7. P.E.D. 입지기업의 산업별 현황

(단위: 업체 수, 명)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합 계	
	기업 수	고용자 수	기업 수	고용자 수	기업 수	고용자 수	기업 수	고용자 수
음·식료	2	95	1	751	0	0	3	846
섬유	1	298	0	0	0	0	1	298
화학	1	0	3	373	5	272	9	645
금속·철강	7	216	0	0	1	25	8	241
기계	6	569	0	0	1	37	7	606
전기·전자	7	1,306	1	30	1	751	9	2,087
기타	6	149	3	348	7	752*	16	1,249
합계	30	2,633	8	1,502	15	1,837	53	5,972

참고: 정보, 기술센터기업이 각각 1개씩 입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창출한 고용자 수는 28명과 526명이다.

자료: Association Transfrontalière, 1999.

구조화에 의한 지역개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들의 입지는 직접적인 고용 효과 이외에 하청 중소기업의 활성화, 경영방식의 현대화, 노하우와 질적인 면에서의 향상 등 지역경제조직의 개방효과와 유인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3) 기업의 입지요인

P.E.D.에 입지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입지선택 요인으로는 유럽의 중심적 위치를 들고 있다.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에 따라 유럽 전시장을 겨냥한 지리적인 중심적 위치가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입지선택 요인으로 재정적 지원을 들고 있다. 즉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안정된 지역 경제의 재 구조화를 이끌기 위해 새로

운 기업 입지와 기존 시설의 확장에 대해 총 투자비의 35%까지 이르는 재정적 원조와 세제상의 혜택이 입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¹¹⁾. 재정적 지원과 값싼 용지가격 이외에 입지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룩셈부르크 시와의 접근성을 들고 있다. 즉 룩셈부르크 시의 금융시설과 국제공항의 이용이 입지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하청기업과의 접근성과 지방·지역시장, 국경적 입지는 중요한 입지요인이 되지 않았다. 이들 지역에 입지한 외국기업들의 경우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완성단계의 조립공장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위 요인들은 중요한 입지선택의 요인이 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표 8. P.E.D. 기업 입지요인

요 인	매우 중요	중요	조금 중요	중요치 않다
재정적 지원				
용지 가격				
하부구조				
하청기업과의 접근성				
지역 또는 지방 시장				
국경적 입지				
유럽적 입지				
룩셈부르크시와의 접근성				

주: | = 1 기업

20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PIA, 10, P.I.A. 이외 10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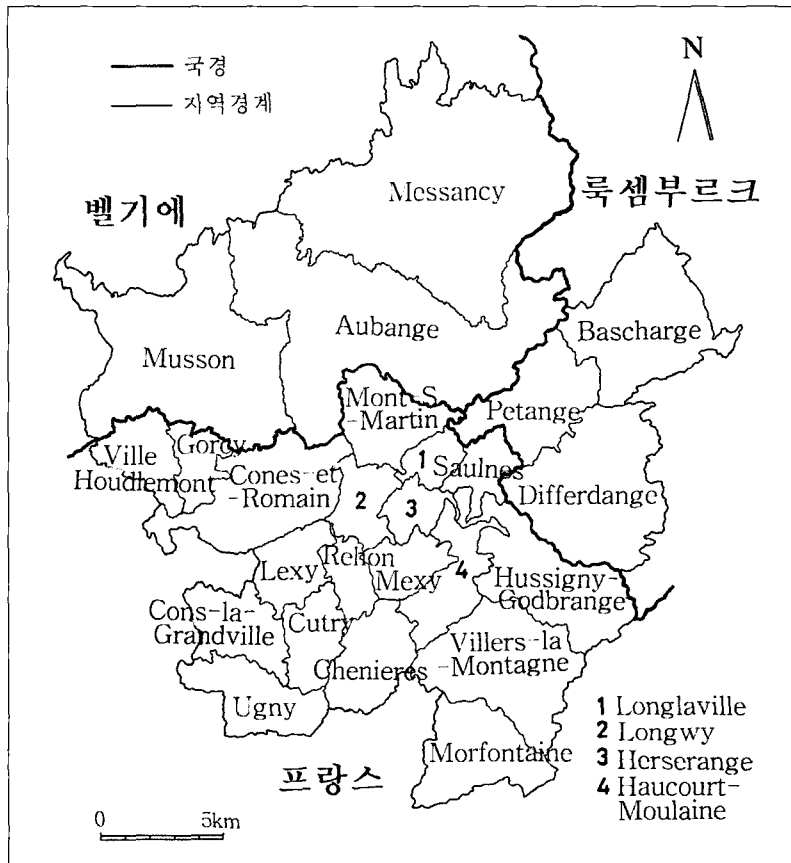
자료: Schulz C., 1996.

5. P.E.D.의 문제점과 재 활성화

1) P.E.D.의 문제점

P.E.D. 특히 P.I.A.지역의 유인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상황 혹은 다른 인접지역의 경쟁에서 기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에 내재된 간접적인 요인들이다. 넓은 의미에서 지역 산업환경의 질적, 구조적 허약성과 관련된다. 현지 입지기업 의해 지적을 받는 지역의 문제점¹²⁾은 교통시설

과 노동력의 공급이 아니라 지역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 도시환경, 주거, 문화생활 환경 등의 차원에서 질적인 허약성 등이다. 또한 쇠퇴 산업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은 도시환경 이외에 지역의 생태학적 상황으로, P.I.A.의 산업 휴간지 개발은 오염된 토양과 하수문제를 등한시하였다. 오염된 토양은 장기간에 걸쳐 생태학적 위협으로 남으며 이것은 상이한 환경 기준을 적용 받는 미국이나 영국의 기업가에게 있어 부정적인 입지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구분	인구 수(명)
벨기에 지역	25,300
프랑스 지역	55,600
룩셈부르크 지역	36,200
전체 접경지역권	117,100

그림 6. P.E.D. 접경지역권

그 밖의 P.E.D.의 내적 문제로는 룩셈부르크 시의 근접성과 관련된 것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이 도시의 영향력이 매우 강화되고 있다는데 있다³³⁾.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룩셈부르크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에 의해 벨기에와 프랑스로부터 많은 질적 노동력을 유인하고 있고 반대로, 벨기에와 프랑스의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와 보다 유리한 세무체계는 룩셈부르크 사람들의 주거지를 인접국가 국경 근처로 이주하게 하고 이것은 접경지역의 주거용지가격을 상승시키고 P.E.D.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문화적, 서비스의 측면에서, P.E.D.의 도시들은 룩셈부르크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지역 생활인들의 생활공간이 룩셈부르크 시에 종속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 P.E.D.의 재활성화

관련된 접경국가와 접경지역자치단체는 유럽연합의 INTERREG II 특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E.D. 지역의 단순한 경제적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행정적, 사회적 차원의 통합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통합된 도시공동체 건설을 위해 벨기에 3개 지방(commune) 약 2만 5천명, 룩셈부르크 3개 지방(commune) 약 3만 6천명, 프랑스 19개 지방(commune) 약 5만 6천명 등 25개 지방 300km², 약 11만 7천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P.E.D.의 접경지역권 (l'Agglomeration du P.E.D.)' 개발이 행해지고 있다. 1992년 처음 제기된 이 개발 계획은 1996년 관련 25개 접경 자치지역간의 협력을 위한 행정적 기구의 창설과 이 계획의 관리를 위해 P.E.D.의 접경지역권 협회(l'Association Transfrontalière de l'Agglomeration du P.E.D.)가 설립되면서 새로운 실체적 존재로서의 통합이 구체화되었다. 즉 도시계획, 환경, 관광, 문화적 행사 등의 분야에서 자치 지역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연구·실행을 통해 지역개발의 촉진과 지역적 통합을 가속화 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개발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통합된 자료에 기초하여 지역권 개발계획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6. 요약 및 결론

인적·물적·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단일시장의 출범으로 국가간에 존재하였던 기존 국경이 폐지됨으로서 지금까지 낙후되었던 접경지역을 개발하고 접경지역간의 상호활동을 증대시켜 통합된 공동체의 내부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들이 유럽연합, 관련정부, 관련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1990년 INTERREG I 계획을 수립하였고 1994년 이 계획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INTERREG II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낙후된 내부·외부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 내부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접경국가간·지역간 협력조직의 설립 장려, 유럽연합 형성에 따른 외부접경지역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적응 촉진, 외부접경지역에서 비회원국과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 추구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실현을 위해 유럽연합 위원회는 관련 지방·지역·회원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접경지역간의 경험과 정보 및 인적교류를 촉진하고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원국간의 양자 혹은 다자간의 모임을 조직하고 있다.

유사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의 접경지역은 유럽연합의 접경지역개발계획(INTERREG)의 지원하에 지역간 공동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사회의 재활성화와 통합된 도시공동체 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기업유치에 의한 고용창출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재활성화 시키기 위해 관련 3개국 정부는 접경지역에 공동으로 '유럽 개발 축(P.E.D.)'과 '국제 업무지구(PIA.)'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P.E.D.의 관리, 실행, 향상을 위한 공동관리 기구의 설립과 교통·통신망 확충, 도시환경 개선 등 공공 인프라 구축, 투자기업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개발을 지원을 위한 교육·연구기관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접경지역 개발기금(EUREFI)이 설립되어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1997년 말 현재 53개 산업시설에서 총 5,972명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어 고용창출 목표치의 75%가 달성되었다. 국가별로는 현지기업의 이전 및 확

장이 많은 프랑스만이 목표치의 48%만을 달성하고 새로운 기업이 입지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각각 100%와 184%로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또는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룩셈부르크는 새로운 기업의 입지선호로 기대 이상의 고용창출효과를 얻었다. 지역별로는 P.E.D.의 기존 지역(Z.A.T.)들에 대한 재정적 원조와 이들 지역의 매력적인 자연환경에 의해 P.I.A. 지역의 입지경쟁력은 지금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P.I.A. 지역은 P.E.D. 전체에서 창출된 고용의 겨우 1/3만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3고용 창출은 기존지역들에서 이루어졌다.

입지기업의 산업분야는 전통적인 철강, 섬유산업에서 화학, 기계, 전자, 정보산업 등 매우 다양하다. 특히 전자산업분야의 9개 기업이 입지하여 과거 철강 단일산업의 지역 이미지의 개선과 지역경제의 재 구조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자산업의 입지는 직접적인 고용효과 이외에 하청 중소기업의 활성화, 경영방식의 현대화, 노하우와 질적인 면에서의 향상 등 지역경제조직의 개방효과와 유인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기업의 주요 입지선택 요인으로는 P.E.D.의 유럽 중심적 위치, 재정적 지원과 저렴한 용지가격 등이 다. 즉 유럽단일시장의 형성에 따라 유럽 전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지리적인 중심적 위치와 새로운 투자기업과 기존기업의 시설확장에 대해 총 투자비의 35%까지 이르는 재정적 원조 및 세제상의 혜택이 입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P.E.D.의 지역환경의 질적, 구조적 허약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쇠퇴 산업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지역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 도시환경, 주거, 문화생활 환경, 생태학적 환경 등이 질적인 허약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P.E.D.의 내적 문제로는 룩셈부르크 시의 근접성과 관련된 것으로 노동시장, 거주지, 생활공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 도시의 영향력이 매우 강화되고 있다는데 있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접경국가와 접경지역자치단체는 유럽연합의 INTERREG 특별 프로그램의 지원하에 P.E.D. 지역의 단순한 경제적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행정적, 사회적 차원의 통합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이고 전체

적인 개발계획을 시도하고 있다. 즉 통합된 도시공동체 건설을 위해 접경지역 25개 지방(300km², 약 11만 7천명)이 참여한 'P.E.D.의 접경지역권 ('Agglomeration du P.E.D.),' 계획에 의해 도시계획, 환경, 관광, 문화적 행사 등의 분야에서 자치지역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연구·실행을 통해 지역개발의 촉진과 지역적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註

- 1) P.E.D.(Pôle Européen de Développement)는 영어로 E.D.A.(The European Development Area), 우리나라 언어로 '유럽개발 축'으로 번역된다. 본 논문에서는 원어인 P.E.D.를 그대로 사용한다.
- 2) 유럽통합 약사
 - 1967. 7, 유럽공동체(EC) 발족(ECSC, EEC 및 EURATOM의 집행부 단일화).
 - 1979. 3, 유럽통화제도(EMS) 발족, 유럽공동화폐 ECU 창출.
 - 1987. 7, 단일 의정서 발효.
 - 1990. 7, 경제통화동맹(EMU) 1단계 진입(EC 내에서 자본의 자유이동 보장 등).
 - 1993. 1, 유럽단일시장 출범(재화·용역·자본의 이동 자유화).
 - 1993. 11,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로 유럽공동체(EC)에서 유럽연합(EU)으로 이행.
 - 1994. 1, 경제통화동맹(EMU) 2단계 진입(유럽통화기구(EMI) 설립).
 - 1995. 1,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유럽연합에 가입(회원국 15개국으로 확대).
 - 1996. 3, 유럽연합의 '헌장제정' 회의인 정부간회의(IGC) 시작(마스트리히트 조약 개정목적).
 - 1997. 6, 정부간회의(IGC) 종결, '암스테르담 조약' (마스트리히트 조약 개정) 채택 및 '안정화협약' (유럽단일통화의 안정적 출범 도모) 채택.
 - 1999. 1, 단일통화(Euro) 최초 도입.
 - 2002. 1, 단일통화로 완전대치.
- 3) 접경지역은 육지 접경지대와 해안접경지대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육지 접경지대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참고로 유럽연합(1995년에 가입한 3개국 제외)의 해안 접경지역은 6만km에 달하며 이들 지역은 삶의 장소, 여행, 국제 무역항 등의 입지요인을 지니고 있다.
- 4) 유럽연합은 공동지역정책 수립을 위해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영토단위 통계인 노맨클라투르(NUTS)를 작성하였다. NUTS는 일반적으로 NUTS 1(71개), NUTS 2(183개), NUTS 3(1,044개)의 3계층으로 이루어져있다(1995년에 가입한 3개 국가는 제외).
- 5) 이 관점에서, 유럽연합의 접경지역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체의 북부에 위치한 접경지역은 보다 발전된 반면 공동체의 남부와 동부에 위치한 접경지역은 심

- 각한 정도로 빈약한 경제적 하부구조로 낙후되었다.
- 6) Interreg는 유럽연합의 접경지역 상호협력(cooperation inter-region) 프로그램의 약자로 접경지역의 상호협력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망의 구축도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전자에 대해서만 다룬다.
 - 7) 유럽연합의 지역정책 투자기금은 크게 구조기금, 유럽투자은행과 기존의 재정기금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구조기금으로는 유럽사회기금(ESF: European Social Fund), 유럽농업지도 및 보장기금(EAGGF: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등이 있다. 이러한 기금의 투입 목적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으로 세분된다.
 - 목적 1: 낙후지역의 발전과 경제적 구조조정을 촉진. 낙후지역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유럽 평균치의 75% 이하 또는 이에 근접하는 지역으로 설정된다.
 - 목적 2: 산업의 퇴조로 쇠퇴하는 지역의 경제적 전환을 촉진. 이러한 지역은 유럽 평균치를 초과하는 실업률을 보이거나 고용감퇴 등의 경향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 목적 3: 장기실업 퇴직 대책, 노동시장에서의 퇴출된 노동자와 젊은이의 직업훈련 대책의 수립하기 위해 지원.
 - 목적 4: 실업 방지수단으로 생산체제와 산업구조변화에 노동자들이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을 위해 지원.
 - 목적 5a: 농·어업 구조조정을 포함한 농·어업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 목적 5b: 농촌지역의 경제적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
- 위의 여섯 가지 기준들에 따라 정책이 목표하는 바는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을 촉진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실업을 흡수하자는데 있다. 목적 1에 해당되는 지역은 비교적 국민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의 빈곤지역이다. 그러나 목적 2, 3, 4의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은 빈곤국가 뿐만 아니라 부유국가에도 존재하며, 산업구조 개편에 실패한 지역 또는 장기적으로 구조가 조정되어야 할 지역들이다. 목적 5a와 5b의 농촌 및 농·어업의 구조조정지역에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의 일부지역이 포함된다.
- 8) 1960년대에도 프랑스와 벨기에,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접경지역에서 분야별 협력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964년 프랑스 로렌의 북부지역과 룩셈부르크 남부지역간에 노동시장의 차원에서 단일시장 실현을 위한 경제적 협력계획이 있었으나 이러한 구상은 이 시기의 높은 경제적 성장에 의해 구체화되지는 못하였다(Association Transfrontalière, 2000).
 - 9) P.E.D.를 중심으로 반경 300km이내에 파리, 브뤼셀,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취리히 등을 포함한 6천만명의 잠재시장이 있으며,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유럽시장뿐만 아니라 동구권시장에 대한 핵심기지로써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 10) 1886~1995년 기간동안 P.E.D.에서 창출된 고용인원은 3,639명으로 목표치의 45%를 달성하였다. 국가별로 프랑스 1,514명의 고용창출로 목표치의 28%, 벨기에 1,171명으로 78%, 룩셈부르크는 954명으로 목표치의 95%를

각각 달성하였다(P.E.D., 1995).

- 11) 대우전자는 프랑스 Villers la Montagne에 TV 공장 Longwy P.I.A.에 전자레인저 생산공장을 각각 입지시켰다. TV공장의 경우 1996년 2월 말 까지 314명의 고용창출 조건으로 토지 및 건물은 100% 정부보조를, 설비는 35%의 지역개발보조 및 정부보조를 받았다. 전자레인저 공장의 경우는 토지 및 건물은 100%의 보조를, 설비에 대해서는 35.2%의 보조 등 총 투자액의 45.2%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았다(대우전자 사내보고서, 대우전자의 유럽 진출사례, 1993).
- 12) Le Republicain Lorrain, 1998, 11, 17.
- 13) Le Republicain Lorrain, 1999, 9, 23.

文 獻

- Association Transfrontalière, 1999, *Association Transfrontalière de l'Agglomération du P.E.D.: Rapport d'Activité 1998 et Programme de Travail 1999-2000*, Longwy.
- Association Transfrontalière, 2000, *The European Development Area: your open gate to the European Markets*, Longwy.
- Collet D., 1991, *Le Pôle Européen de Développement: une coopération des trois frontières, benelux, Wallonne*.
- Commission européenne, 1991, *Europe 2000: les perspectives de développement du territoire communautaire*, Bruxelles.
- Commission européenne, 1994, *Guide des initiatives communautaires 1994-1999*, Bruxelles.
- Commission européenne, 1994, *Compétitivité et Cohésion: tendances dans les régions*, Bruxelles.
- Commission européenne, 1995, *Guide des actions novatrices du développement régional(article 10 du FEDER) 1995-1999: Coopération interrégionale et innovation économique: Aménagement du territoire: Domaine urbain*, Bruxelles.
- Commission européenne, 1996, *Fonds structurels et Fonds de cohésion 1994-1999: Textes réglementaires et commentaires*, Bruxelles.
- Commission européenne, 1999, *Eurostat: Annuaire '98*, Bruxelles.
- Déclaration Commune, 1985, *Déclaration Commune et Programme d'Action pour un Pôle Européen*

- Développement*, Luxembourg.
- Erpelding F., 1993, *Pôle Européen Développement*, Rodange.
- IDELUX, 1995, *Bilan de 10 années de coopération transfrontière*, Luxembourg.
- IDELUX, 1997, *Pôle Européen de Développement: Rapport d'activités conjoint sous présidence luxembourgeoise*, Luxembourg.
- Le Republicain Lorrain, 1999, 9, 23, etc..
- Observatoire de l'urbanisme de l'agglomération du P.E.D., 1995, *Communes du projet d'Agglomération du Pôle Européen de Développement*, Longwy.
- P.E.D., 1992, *la lettre: le nouvel élan*, Luxembourg.
- P.E.D., 1995, *Pôle Européen de Développement: 10ans de P.E.D.: Un espace nouveau, un avenir partagé*, Longwy-Rodange-Arlon.
- Schulz C., 1996, *L'Agglomération Transfrontalière du Pôle Européenne de Développement(P.E.D.)*, *Revue Géographique de l'Est*, n° 17.
- 원 고 접 수 일 2002. 9. 19
최종원고접수일 2002. 11. 18